

JY, 반도체 핵심기지 온양서 차세대 패키지 기술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경영 첫 번째 방문지는 아산 온양캠퍼스 반도체 후공정 부분 핵심역할 담당 평택·기흥 등서 '밸류체인' 점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부터 현장 경영에 돌입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반도체 개발 및 조립검사 등을 맡고 있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캠퍼스다.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반도체 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이날 방문한 온양캠퍼스는 반도체 후(後)공정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차세대 패키지 연구개발 중심 생산단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과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부회장, 백홍주 TSP총괄 부사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이 6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3개 사업부인 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 등에 속하지 않고 TSP(Test&System Package) 총괄로 구분되며 반도체 패키지의 개발과 생산, 테스트, 제품 출하까지 후공정 전체를 총괄한다. 특히 TSP총괄이 지난 6월 1일부터 삼성전기로부터 PLP(Pan-El Level Package)사업을 7850억원에 양도받은 이후 이 부회장의 첫 방문이

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PLP는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데 필요했던 인쇄회로기판(PCB) 없이 반도체를 완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다. 삼성전기는 2015년부터 차세대 패키지 기술인 PLP 개발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용 AP(어플



이재용 부회장(앞쪽부터), 김기남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이 6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경영을 하고 있다.

리케이션 프로세서)패키지를 양산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PLP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최근 반도체 칩부터 패키지까지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높아져 이 사업의 양수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점검하기 위해 TSP총괄을 맡고 있는 백홍주 부사장, 진교영 메모리사

업부장 사장 등과 함께 온양캠퍼스를 돌아보며 점검했다. 또 평택 사업장(메모리)과 기흥사업장(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아산 탕정사업장(디스플레이) 등도 방문해 전자 부문 '밸류 체인'(공급망) 전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일본 출장을 다녀온 뒤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부회장과 진교영 메모리사업부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영진과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사장단에 비상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지시하면서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휴대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분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대비하라며 경우의 수를 대비한 대처 방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가 6일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공개를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LG전자

LG,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공개 초청장

내달 獨 베를린 IFA 2019 서 발표 업그레이드 된 듀얼스크린도 공개

LG전자가 6일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공개를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은 게임 화면을 모티브로 제작한 약 20초 분량 영상이다. 캐릭터가 게임 안에서 '카메라'와 '게임패드' 아이템을 획득하고 나면 화면 왼쪽에 같은 크기로 두 번째 화면이 펼쳐진다. 캐릭터는 새로운 화면에 펼쳐진 지도로 넘어와 IFA 2019가 열리는 '베를린박람회장'으로 이동한다.

LG전자는 두 화면을 넘나드는 게임 캐릭터를 통해 고객들이 LG 듀얼스크린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는 '동시 사용', 앱 하나의 UI를

각각의 화면에 나눠 실행하는 '분리 사용'이 모두 가능한 점을 표현했다.

캐릭터가 목격자인 IFA 전시장에도 착하고 나면 두 화면이 반으로 접히며 닫히고 이후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인다. 영상은 뒤이어 나오는 'Save the Date(이 날은 비워 두세요)' 메시지와 함께 끝난다.

LG전자는 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9에서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스마트폰 신제품과 함께 보다 업그레이드된 LG 듀얼스크린을 처음 공개한다. 전시회가 개막하는 하루 전날에는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풀만호텔 베를린 슈바이처호프에서 글로벌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

SK엔카닷컴 “앱 리뷰 남기면 경품 팡팡”

8월 ‘나만 에어팟 없어...’ 이벤트

SK엔카닷컴이 8월 한 달간 앱 리뷰 작성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SK엔카닷컴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 앱 리뷰를 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과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는 ‘나만 에어팟 없어 내 멘탈 바사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SK엔카닷컴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8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구글

플레이 및 앱스토어에 접속, SK엔카 앱에 평점과 리뷰를 남기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응모페이지(공식홈페이지/앱) 이벤트(응모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기존 앱 설치 유저 역시 참여할 수 있으며 정성껏 쓴 리뷰일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무선 충전 에어팟 2세대를 10명에게 치킨 상품권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오는 9월 10일 SK엔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세계최초 6세대 V낸드 SSD 양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글로벌 PC업체에 공급 시작 100단 이상 셀 한 번에 가공

삼성전자가 V낸드 기반 기업용 PC SSD 공급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6월 '6세대(1xx단) 256Gb(기가비트) 3비트 V낸드'로 만든 기업용 PC SSD를 양산하고 글로벌 PC업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업용 250GB SATA P C SSD 양산을 시작으로 하반기 512Gb 3비트 V낸드 기반 SSD와 eUFS 등 다양한 용량과 규격 제품을 연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SSD에 쓰인 6세대 V낸드는 100단 이상 셀을 한 번에 뚫는 단일공정



삼성전자 6세대 V낸드 기반 기업용 SSD

(1에칭스텝)을 사용해 양산성을 극대화했다. 피라미드 모양 3차원 CTF셀을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수직으로 뚫는 기술로, 9x단 이상에 적용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채널 홀을 6억7000만개로 만들면서도 256Gb 용량을 구현해 생산성을 이전 대비 20% 이상 제고했다.

그러면서도 속도와 절전 특성까지 확보했다. 6세대 V낸드에 '초고속 설계 기술'을 적용하면서 데이터 쓰기 시간 450μs 이하, 읽기응답 대기시간 45μs 이하라는 3비트 V낸드 역대 최고속도를 달성했다. 이전세대보다 10% 이상 성능을 높이고 동작 전압도 15% 이상 줄였다.

삼성전자는 추후 6세대 V낸드로 모바일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섬과 동시에,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서버시장 고용량을 주도하고 자동차 시장으로도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평택 V낸드 전용 라인을 통해 더 성능을 높인 V낸드 기반 SSD 라인업 확대도 예고했다. /김재용 기자 juk@

건강관리 기능 강화... 삼성, 최신 스마트워치 공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선보여 스트레스·수면관리 기능 향상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공개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스타일과 건강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설정할 수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갤럭시 생태계와의 연동으로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준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44mm와 40mm의 두 가지 크기가 있으며, 각 크기별로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에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스포츠 스트랩을 제공하는 모델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에 가죽 스트랩을 조합해 프리미엄한 느낌을 제공하는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사용자가 건강 관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완벽한 파트너로서 운동·스트레스·수면 관리 기능도 향상됐다. 달리기, 걷기, 자전거,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삼성전자

수영, 로잉 머신 등 7개 종목을 자동 측정하고 총 39개 이상의 운동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업데이트된 '페이스메이커와 달리기' 기능은 사용자가 운동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시간 페이스 코칭을 해주며 힘차게 달리기, 인내력 키우기, 지방 태우기 등 7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향상된 수면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해 보다 정확하게 4단계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고, 양질의

수면 패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할 수도 있다.

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LTE 모델로도 출시가 되어, 스마트폰 없이도 전화를 걸고 받거나 소셜 미디어 뷰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목 위에서 소셜 포스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어·중국어·스페인어 등 16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